

여수광양항 동북아 물류허브 박차

전남도·유관기관, 발전협의회 전략 마련·국비 확보 한마음

전남도가 여수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여수광양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도록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도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정, 여수광양항 발전 및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허브 육성,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시·광양시 부시장, 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전남 동부권 현안으로 떠오른 여수광양항 발전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토론했다.

전남도는 여수광양항 발전 및 활성화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해수부에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사업의 조기 착수와 미반영 사업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 통과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울촌 제2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나 항만 재개발 또는 산업단지 등 유형별로 개발할 때 예측되는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의 2050 탄소중립 항만 구축과 관련해 순환형 수소 공유망

구축, 광양항 아드 트랙터의 동력원을 수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시에서 건의한 여수조선소 집적화 연관사업에 대해 항만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광양시가 건의한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3개 기관에서 현재 확보·계획 중인 배후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는 지난 2019년 6월 구성해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여수광양항 관련 기관장, 단체 임원, 대학교수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본격 행보

18일 추진위원회 출범 22일 친환경차 배터리시험동 개소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로 세계적 수준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선언한 광주시가 관련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15일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에픽을 방문, 광주 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에픽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와 함께 지난 10일 광주시와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2일에는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시험동을 개소한다.

이 시장은 "미래 차 산업 육성은 의지만으로는 안 될 것이며, 광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들에 심어줘야 가능하다"며 "3030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일부 시설이 준공되고, 인센티브가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

또 광주지역 산단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전장산업도 앞서 있는 만큼 기업들에 충분한 유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소기업구조개선 용자 지원

점포시설 개선·운전자금 등 25억원 투입...저금리 대출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위해 2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용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점포시설개선, 유통업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기존 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을 대상으로 하며,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업체당 1억원 이하이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비비용을 대

으로 3년 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업체당 5000만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2%(2022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이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용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만다. 지원 희망자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업체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면 시중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단위 농협 제외),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해 임용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공직 가치관을 확실하게 확립해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시장 "현산, 흥정식 협상 말고 충분한 보상해야"

이번 주 내 유가족 보상 약속 촉구 계림아파트 입주민 안전 최우선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현산)은 유가족과 흥정하는 식의 협상에서 벗어나 몇 차례 약속한 대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실종자 수습이 완료됐지만, 보상 문

제 등으로 장애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현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붕괴 사고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인근 156개 피해 상가의 생계유지, 사업 영위를 위한 피해 보상 계획 등도 하루빨리 상인 대책위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붕괴한 201동을 포함해 2개 단지 8개 동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 또는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계림 아파트 SK뷰 아파트의 안전진단과 관련해선 "지난달 12일 동구청이 공사를 중지하고 테스코프스에서 안전 진단을 의뢰한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면서 "입주 예정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車·에너지·헬스케어 AI 실증 장비 구축 속도

광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 실증 장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자동차 11종, 에너지 1종, 헬스케어 2종 실증 장비를 도입한다.

지난해까지 구축한 63종에 더해 모두 77종의 실증 장비를 갖추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인공지능 특화산업 실증센터는 데이터 수집·분석·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는 헬스케어 실증센터가 들어서 신체검사, 제품 테스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구축돼 자율주행차량 성능, 안전성 평가 기준 확립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인공지능 공공의료 서비스' 플랫폼은 개인 의료정보 실시간 제공, 진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기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 보육료 지원

올해부터 광주 지역 외국 국적 유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 중이다. 현 조례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유아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연합회, 시민단체 등은 평

등권에 위배된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매달 28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인원은 150여명(전체 380명)이며 소요 예산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는 떠났고, 네가 살던 세상의 흔적을 오석의 그리고 싶다

<오석의 대표적 장점>

- 영구적
- 종량감
- 아득함
- 신
- 불변함

<주 사용자>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납골당 수목장 표지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묘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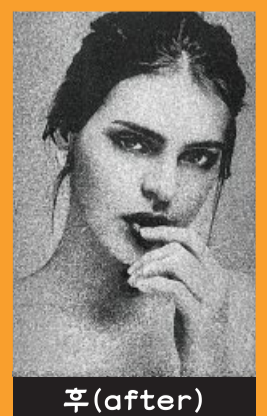
<기존 돌액자>

아크릴, 유리 등 다른물질에 인쇄 후 부착



<돌 자체에 각인>

(오랜시간 변함이 없음)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적업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컬러는 불가능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와이석재

문의전화 | 062)464-3466